

문학번역에서의 명시화(explicitation)와 잉여적 요소 - 모언(莫言)의 「师傅越来越幽默」를 중심으로 - *

남 철 진
(영남대)

1. 명시화의 정의와 범주

명시화(explicitation)는 비네와 다르벨네(Vinay and Darbelnet 1958)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의미의 외연화’, ‘의미의 명시화’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전현주 2013: 121) 『라우트리지번역학백과사전』에서는 번역의 보편적 특징(universals of translation)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번역을 하면 일반적으로 원전(ST)보다 번역본(TT)의 분량이 증가하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명시화이다. 다음은 번역학 관련 저서에 소개된 명시화에 대한 정의 및 설명들이다.

* 본고는 2015년 10월 17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번역학회 2015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국문학 번역에서의 명시화(explicitation)와 잉여적 요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① 원천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고 함축된 정보를 목표텍스트에 드러나도록 명시해주는 번역 기법. (한국번역학회 옮김 2009: 132)
- ② 원천언어에 함축적으로만 존재하지만 문맥이나 상황을 통해 유도해낼 수 있는 정보를 목표언어에 소개하는 과정. (비네와 다르벨레 1958: 8)¹⁾
- ③ 원문에는 없지만 문맥적 지식이나 상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번역사가 번역문에 의미의 세부사항을 더 해서 표현하는 번역절차. (이인향 옮김 2005: 43)

우선 상기 명시화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면 무엇을 명시화 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명시화의 대상은 대체로 원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문맥이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상황을 통해 유도해낼 수 있는 정보나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등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며 그 범위가 확정적이지는 않다. 명시화의 범위에 대한 이견은 이미 학자들 간에 제기된 바 있다. 명시화 가설(explicitation hypothesis)을 처음 제기한 블룸 쿨카(Shoshana Blum-Kulka)는 주로 표층결속성(cohesion)의 명시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Translating always increases the semantic relations among the parts of translated text, establishing a greater cohesion through explicitness, repetition, redundancy, explanation and discursive strategies. (Lawrence Venuti 2004: 222)

세귀노(Séguinot)는 블룸 쿨카의 명시화 정의가 너무 편협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명시화는 ‘원전에 없었던 무언가가 번역본에 표현됐을 때’ 뿐만 아니라, ‘원천 텍스트에 함축돼 있거나 전제를 통해 이해되던 무언가가 번역과정에서 명백하게 외부적으로 표현되거나, 원천 텍스트의 어떤 요소가 번역과정 중에 초점과 강조, 어휘 선택 등을 통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때’도 발생한다. (한국번역학회 옮김 2009: 134)

1) 한국번역학회 옮김 2009: 132(재인용)

김정우와 원영희 역시 명시화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제시하고 있다.

ST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TT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ST에 없거나 혹은 ST의 문맥에 감춰진 의미를 TT의 표면에 덧붙여서 드러내는 표현 양상을 가르킨다. ……명시화는 구체적으로 접속사의 첨가, 대명사의 중의성 해소, ST 독자들에게 익숙하지만 TT 독자들에게 낯선 고유명사에 대한 보충적 정보의 제공도 물론 명시화의 일종이다. (김정우 2009: 79)

번역가가 특별한 혹은 개인적인 의도에 따라 원문에도 없는 언어 요소를 번역문에 첨가해서 원문의 의미를 선명하게 만들려는 시도. (원영희 2004: 116)

이처럼 명시화의 범위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데 명시화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번역가가 왜 명시화 전략을 구사하는지 그 근본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나이다(Nida)와 테이버(Taber)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This tendency to greater length is due essentially to the fact that one wishes to state everything that is in the original communication but is also obliged to make explicit in the receptor language what could very well remain implicit in the source language text, since the original receivers of this communication presumably had all the necessary background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message. (Nida & Taber 2004: 163)

셔틀워스(Shuttleworth)와 카위(Cowie)는 번역가의 명시화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This process(explicitation) may be avowedly philanthropic motivated by the translator's conscious desire to explain the meaning to the TT reader or may sometimes simply be an inevitable result of the act of mediation. However, whatever the reason the result is that “the translator simply expands the TL text building into it a semantic redundancy absent in the original. (Mark Shuttleworth & Moira Cowie 2006: 55)

다음은 클라우디(Klaudy)가 언급했던 명시화의 네 가지 유형이다. (조의연 편저 2012: 133-135)

의무적 명시화: 출발어와 도착어의 통사 구조상의 차이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선택적 명시화: 텍스트 구성 전략의 차이와 언어 간 선호하는 문체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

화용론적 명시화: 출발어와 도착어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번역문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목적으로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

번역 내재적 명시화: 번역의 본질적 특성으로 번역과정에서 번역가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분명하게 밝히려는 경향이 있어서 부지불식간에 명시화가 발생함을 이룸.

명시화 의도는 원문의 내용을 도착어 독자들에게 확실히 전달시키고자 하는 번역가의 심리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문화와 언어가 다른 독자를 배려하는 번역가의 중재행위로 볼 수 있다. 클라우디가 말한 명시화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언어적 차이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무적 명시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가지는 결국 언어나 문화가 다른 도착어 독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명시화는 번역가의 재량이자 출발어와 도착어 독자 사이의 언어문화적 갭(gap)을 채워주어야 하는 번역가의 책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꼭 원문의 행간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원문에는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도착어 독자의 원활한 이해와 소통을 돕기 위해 번역가에 의해 재량껏 추가되는 것들을 명시화의 대상으로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명시화의 근본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세귀나의 주장처럼 확장된 명시화의 개념을 도입할 것이다.

2. 명시화와 잉여적 요소의 발생

도착어 독자의 용이한 수용과 소통을 위한 명시화는 번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명시화는 번역가의 주관에 개입되는 영역이

며 번역가의 개입이 과다하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원문의 내용 전달과 가독성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 불필요한 요소가 첨가되거나, 도착어 독자 역시 충분히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어서 문맥적 이해가 가능한 데도 함축된 정보를 굳이 표현한다면 이는 독자의 몰입도를 저하시키고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원문의 왜곡이나 문체미의 손상은 물론 번역된 텍스트 자체가 텍스트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처럼 명시화는 번역이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실제 번역된 텍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체적이고 전면적인 연구가 많지 않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원영희의 「의미의 선명화를 위한 번역담화상 잉여성의 문제」와 김혜림의 「한중 번역의 단순화와 명시화 연구: 신문사설 코퍼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신지선의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명시화 전략: ‘문학적 감동’과 ‘문화적 자극’을 고려하여」 등이 있다.²⁾ 본고에서는 실제 번역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명시화 의도로 인한 잉여적 요소의 구체적 발생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번역에서 명시화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번역문에는 불필요한 잉여적 요소가 첨가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방금 위에서 언급하였

2) 원영희는 릭 워렌(Rick Warren)의 『목적이 이끄는 삶』 제2장의 소제목 6개를 대상으로 초벌번역가의 번역과 출판된 전문번역가의 번역을 각각 고찰함으로써 첨가-선명화-잉여성의 관계를 논하였고 최종적으로 대안번역을 제시하였다. 결론은 선명화로 인한 잉여적 요소의 첨가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자연스러운 번역 및 의미의 정확성 증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번역학연구』 5(1), 2004) 김혜림은 번역 보편소인 단순화와 명시화를 신문사설 코퍼스를 통해 통계적으로 증명하였다. 즉 한중 번역 신문사설 코퍼스(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순수 중국어 신문 사설 코퍼스(인민일보, 신화사)를 비교한 결과, 전자(한중 번역 신문사설 코퍼스)의 어휘 밀도(내용어/총단어 수)와 기능어 대비 내용어 비율이 후자(순수 중국어 신문 사설 코퍼스)보다 낮게 나왔고(단순화 가설 확인) 전자의 총 단어수 대비 기능어 비율 및 접속사 사용 빈도가 후자에 비해 높게 나왔다.(명시화 가설 확인) (『통번역학연구』 18(3), 2014) 신지선은 아동문학에서 아동의 인지적 기능을 고려한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즉 작품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는 명시화하되 어린이의 특징을 고려하여 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으며 명시화의 방법과 정도를 결정할 때 원문의 목적과 원저자의 의도, 번역문의 목적과 번역 독자의 특성을 파악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의연 편저 (2012) 『번역학 무엇을 연구하는가』,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시화로 인한 잉여적 요소의 발생 및 그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모옌(莫言)의 중편소설 「師傅越來越幽默」의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이다.³⁾ 명시화 연구를 위한 텍스트를 문학작품으로 선정 한 이유는 명시화로 인한 오류는 문학텍스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9: 21) 연구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문과 번역문 전체를 대조하여 번역가의 명시화 의도로 인해 잉여적 요소가 발생한 사례들을 모두 추출해 볼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잉여적 요소를 발생시킨, 과도한 명시화가 일어난 1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근거하여 모든 사례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유형별 사례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각 사례별로 잉여적 요소가 발생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실제 번역 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번역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1 과도한 주관적 개입

과도한 주관적 개입이란 원문에 없는 메시지나 내용을 번역가가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추가된 내용이 원문에 녹아있는 함축적인 메시지가 아닌 확인 불가한 내용 혹은 번역가의 과도한 창작이나 수식 어구의 첨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원저자의 의도로 볼 수 없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내용이 추가된 경우를 말한다.

ST: 市农机修造厂的前身是资本家的隆昌铁工厂, 当时的主要产品是菜刀和镰刀, 公私合营后改名为红星铁工厂……

TT: 시 농기계 수리제작장의 전신은 악질자본가가 소유했던 룡창(隆昌)철

3) 본 작품을 연구 대상 텍스트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작품은 중편으로 분량 상 너무 짧거나 긴 장편이 아니어서 작품 전체를 고려해야하고 원문과 번역문을 일일이 대조하여야 하는 본 연구에 적절한 분량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본 작품은 모옌 작품 번역집의 표제작이므로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문학적 효과나 인간의 본성과 심리변화 등의 묘사가 탁월하여 명시화 관련 연구에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공소로 당시 주요생산품은 부엌칼과 낫이었다. 공사합영(公私合營) 조치가 취해진 후 그것은 홍성(紅星) 철공장으로 이름이 바뀌어……

원문의 資本家를 번역하며 ‘악질’이란 수식어를 첨가하였다. 만약 이 공장이 원래 악질자본가가 소유했던 기업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본 공장의 최초 소유가 악질자본가가 아닌 민족자본가라는 데에 있다. 공사합영은 중국 당국이 195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민족자본주의 기업에 대한 사회주의식 개조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공산화 이후 개인 기업을 공기업화하는 첫 단계 시책이다.(남철진 2014: 327) 본 단락은 주인공이 다녔던 공장의 연혁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공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작품 이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ST: 少妇说: “能不能便宜点?”

TT: 젊은 아낙은 홍정을 걸었다. “좀 싸게 해줄 수 없나요? 깎아주면 좋겠는데……”

밑줄 친 부분도 번역가가 주관적으로 추가를 한 부분이다.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추가된 내용은 사실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젊은 아낙은 매우 부유한 계층으로 작품 가운데 거의 말이 없는 인물이며, 저자거리 반사기꾼 돼지장수에게 가격을 깎아 달라며 흥정하는 캐릭터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번역문은 원문대로, 물건을 사면서 형식적으로 가격에 대해 한 마디 던지는, 아주 짧고 간단한 어투로 번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불필요한 명시화가 주요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하나 더 보자.

ST: “师傅啊师傅!” 小胡道, “徒弟当初是吹牛给您壮胆呢, 我哪里有什么表弟在公安局?”

TT: “아이고 사부님, 이 답답한 사부님아!” 샤오후는 기가 막혀 그의 팔을 붙잡아 흔들었다. “전 애당초 사부님더러 배짱 두둑이 먹고 용기 좀 내라고 허풍을 떠는 것이지, 저 따위한테 무슨 공안국에 다니는 사촌 아우가 있단 말입니까?”

주인공이 자신의 불법 영업이 밝혀져서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를 상상하여 혹여 무슨 일이 생기면 쥐약을 먹고 자살하겠다고 도제에게 말하자 도제가 자신의 사부에게 하는 말이다. 도제는 자신의 스승을 물심양면으로 깎듯이 모셔왔고 주인공 역시 도제를 자식처럼 믿고 의지하는 관계이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도해 온 스승에게 한 번도 무례하게 대한 적이 없는데, 원문에는 없는 “이 답답한 사부님아!”라는 표현으로 인해 독자들은 자칫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전과 상당히 달라지는, 국면의 전환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가 막혀 그의 팔을 붙잡아 흔들었다.”는 부분도 원문에는 없는 번역가의 창작이다. 원문에는 도제가 말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번역문에는 도제가 스승에게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다. 작가의 의도가 상당히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다.

ST: 在幽幽的空调声里, 他喝了一口吴副主任亲自给他倒的热水, 哽住的喉咙缓开了.

TT: 시원한 에어컨이 찬 공기를 뿜어내는 집무실에서, 우 부주임이 손수 따라주는 뜨거운 차를 마셨더니 울음으로 메었던 목구멍이 풀리기 시작했다.

在幽幽的空调声里는 핵심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일종의 배경이다. 그런데 단순 제시된 배경이 너무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었다. 상기 단락은 주인공이 우부주임의 극진한 대우를 받자 극도의 불만이 오히려 황송함으로 변하는 장면이다. 독자는 강렬한 배경 묘사로 인해 이러한 핵심 내용의 전달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추가된 부분은 사실 여부의 판단도 어렵지만 원작이나 원저자의 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하나 더 보자.

ST: 他还嗅到了从她的身体上散发出一股浓浓的香气, 比厂长招待他喝过的茉莉花茶还要香, 比厂长的女秘书身上的香气还要香

TT: 또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길디질은 향내도 맡을 수 있었다. 그 향내는 공장장의 집무실에 초대받아 연어 마신 제스민 차보다도, 찾잎이 담긴 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던 여비서의 체취보다도 더 향기로웠다.

‘여비서’ 앞에 ‘찾있이 담긴 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던’이라는 긴 수식어가 추가되었다. 물론 앞 부분에서 공장장의 여비서가 차를 타서 주인공에게 접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让女秘书倒水泡茶). 그러나 본 제시문의 핵심은 (부유한)젊은 여인의 몸에서 짙은 향기가 난다는 사실이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교의 예로 제시된 여비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추가된 수식 어구는 상당히 형상적이고 구체적이데 이렇게 되면 독자의 관심과 글의 초점이 부유한 젊은 여인의 형상에서 여비서에게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원문에는 없는 긴 수식 어구를 만들어 추가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개의 병렬 어구 가운데 앞의 것을 짧게 처리하지 못하고 다소 장황하게 번역하는 바람에 뒤의 어구도 앞의 것과 비슷한 편폭으로 맞추려하다보니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比厂长招待他喝过的茉莉花茶还要香’을 ‘공장장실에서 얻어 마신 채스민 차보다도’ 정도로 간략히 했다면 뒤 따르는 ‘比厂长的女秘书身上的香气还要香’을 번역하면서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길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대안역: 또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질디질은 향내도 맡을 수 있었다. 그 향내는 공장장실에서 얻어 마신 채스민 차보다도 공장장 여비서의 몸에서 나던 향기보다도 더 진했다.

ST: 表弟摸着手电筒走到门前, 轻轻地踢了一脚, 铁门竟然应声而开.

TT: 사촌 아우가 손전등을 비추면서 문 앞으로 다가서더니, 가볍게 문짝을 툭 걷어찼다. ‘팅!’ 하는 소리. 그토록 애를 먹인 강철 문짝도 경찰 나리의 발길질에는 배겨낼 수 없었는지, 단번에 응답이라도 하듯 안쪽에 질러놓은 빗장이 툭 부러지면서 스프르 열렸다.

‘铁门竟然应声而开’를 번역하면서 번역가는 원문에 없는 그리고 저자의 의도로 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들을 창작하여 많은 추가를 하였다. 추가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번역가의 명시화 의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폐기된 버스 속에 들어간 두 남녀가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도 않고 인기척도 없자 주인공은 문을 강제로 열려고 온갖 노력을 해 보았다. 그러나 주인공은 문을 열지 못했고 버스 안에서 남녀가 자살한 것으로 오인하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경찰을

불러오는데 그 때는 좀 전과 달리 의외로 문이 쉽게 열렸다. 즉 ‘铁门竟然应声而开’는 ‘좀 전과 달리 의외로 문이 쉽게 열렸다.’는 것이 핵심이다. 번역가는, 좀 전에는 그렇게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던 철문이 경찰이 오고 나니 예상과 달리 아주 쉽게 열렸다는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 많은 창작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전의 내용과 더불어 부사 竟然의 의미를 통해 반영이 되고 있으므로 부사 竟然을 적절히 번역하면 과도한 명시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역: 사촌 아우가 손전등을 비추면서 문 앞으로 다가서더니, 가볍게 문 짝을 툭 걷어챘다. 그랬더니 웬걸 철문이 끼익하며 열리는 게 아닌가.

2.2 특정 어구에 대한 과다 부연

특정 어구의 과다 부연이란 번역가가 특정 어구를 번역하면서 도착어 독자를 배려하여 많은 부연 설명을 하거나 혹은 한국어와는 다른 중국어 특유의 표현을 일일이 번역함으로써 번역문이 장황하게 되거나 중언부언(重言復言)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자의 경우부터 보자.

ST: 他支起①自行车, 前后左右地张望了一会儿
TT: 그는 자전거를 버티 세워놓고 앞뒤좌우를 빙 둘러보다가

ST: 人们向前拥挤着②
TT: 사람들이 밀치락달치락 북적대면서 홍보게시판 앞으로 몰려들었다.

ST: 警察一个接一个地③从警车里钻出来
TT: 곧이어 경찰차에서 경찰이 한 사람에 이어 한 사람씩 빠져나왔다.

상기 세 가지 예는 漢字 하나하나의 뜻을 모두 번역하여서 생긴 일종의 번역투로 볼 수 있다. 중국어는 한 글자으로써 하나의 동작을 표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행위를 표현 할 때 행위의 과정상 일어나는 각 동작들을 모두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①의 支起도 그런 경우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는 ‘자전거를 세웠다.’인데 굳이 중국어 표현대로 동작을 구분하여 ‘버티(支) 세운다(起)’라

할 필요가 없다. ②拥挤도 그냥 ‘몰려들었다.’ 정도로 표현해도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 拥(밀어닥치다), 挤(붐비다)를 각각 번역하면서 중복적 표현이 되었다. ③의 一个接一个地 역시 ‘한 사람씩’이라 하면 되는데 글자 한 자 한 자를 모두 번역하다보니 다소 장황한 표현이 되고 말았다. 이상의 경우는 表意文字를 사용하는 중국어 특유의 표현 방식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매 漢字 하나하나를 일일이 번역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시화는 원문에 없는 요소가 번역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원문에 있지만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을 위해서는 생략하거나 간략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려는 번역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명시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한번역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명시화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은 특정 어구를 번역함에 과도하게 부연하여 장황한 번역이 된 예들이다.

ST: 老丁接受了那个男人的建议, 在休闲小屋里放上了男女欢爱所需要的一切东西, 还放上了啤酒、饮料、鱼片、话梅等小食品.

TT: 라오딩은 그 사내의 건의를 받아들여 휴게소 안에 남녀가 사랑을 즐기는데 필수적인 물품을 갖춰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맥주와 음료수, 말린 생선포, 소금과 설탕에 절여 햇볕에 말린 매실 따위 간식거리도 마련해놓았다.

원문의 啤酒, 饮料, 鱼片, 话梅은 小食品의 예로 제시된 것으로 이 예들은 모두 간단한 형태이며 두 글자로 이루어져 통일감이 있다. 반면 번역문에서는 각 예의 형태가 서로 달라졌고 특히 도착어 독자들에게 생소한 话梅는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장황한 번역이 되었다. 또한 문장 전체의 통일감과 질서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전체 의미도 원문과 다소 상이하게 되었다.

대안역) 라오딩은 그 사내의 건의에 따라 휴게소 안에 남녀가 사랑을 즐기는데 필수적인 물품과 맥주, 음료수, 생선포, 절인 매실 등 간식거리도 마련해놓았다.

ST: 他坐在树下, 看到有很多老人在人工湖边晨练, 有的遛鸟, 有的散步, 有的打太极拳, 有的练气功, 有的吊嗓子.

TT: 그는 나무 아래 앉아서, 솔한 노인들이 호숫가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애완용 새장을 들고 천천히 걷는 이, 한가롭게 산보하는 이, 태극권을 단련하는 이, 기공 연마를 하는 이, 게다가 목청을 드높혀 발성 연습을 하는 노인까지 있었다.

영업 첫날 새벽, 주인공이 고객을 기다리면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 노인들의 아침운동을 보고 있는 장면이다. 다양한 아침운동을 하는 노인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인공과는 처지가 다른 많은 노인들이 아침에 운동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이며 예로 제시된 운동 하나하나에 대해 상세한 묘사를 할 필요는 없다. 단순 제시된 예들을 상세히 번역·기술하게 되면 독자들로서는 작가가 전달하려는 주요 내용 보다 제시된 예시 하나하나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대안역: 새에게 아침 운동을 시키는 이, 산책하는 이, 태극권하는 이, 기공 체조하는 이, 발성연습 하는 이 등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호숫가에서 새벽운동을 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았다.

ST: 他的客人大多是寻欢作乐的野鸳鸯, 偶尔也有好奇的夫妻和恋爱着的情侣.

TT: 대다수 고객은 정식 연인이나 기혼부부가 아니라 한때 환락을 즐기려고 야합하는 유부녀 유부남이었다. 어쩌다 호기심 많은 부부나 연인이 찾아들 때가 있긴 했다.

우리나라에서의 원앙은 부부 사이의 돈독한 애정을 상징하는 동물이지만 중국에서 원앙은 경우에 따라 건전하지 못한 남녀 관계를 비유할 때 사용하는데 특히 중국에서 野鸳鸯이라 하면 불륜 관계인 남녀를 지칭하는 말이다. 번역가는 野를 ‘야합하다’로 鸳鸯을 ‘유부남 유부녀’로 풀이하고 있으며 앞에 ‘정식 연인이나 기혼부부가 아니라’는 설명까지 추가하였다. 우선 野鸳鸯에 대한 풀이와 추가 설명은 중복된다. 우리나라에서는 野鸳鸯에 대응되는 말이 없으므로 그 의미를 간략히 풀어서 제시하거나 혹은 원앙으로 직접 번역을 해도 앞뒤 문

맥을 통해 그 지시하는 바가 불륜커풀됨을 알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野鴛鴦은 일종의 문화소로 형상적인 비유물이다. 상기 번역은 형상적인 동물 비유를 통해 의미를 선명하고 인상 깊게 전달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약간은 생소함이 있더라도 비유적인 표현을 원용하는 번역이 바람직해 보인다.

대안역) 대다수 고객은 한때 환락을 즐기려는 원앙쌍들이었다. 어쩌다 호기심 많은 부부나 연인이 찾아들 때도 있긴 했다.

ST: 灿烂的阳光刺得他眼睛生痛, 他感到自己就像一个在地洞里生活了多年的老鼠一样畏缩.

TT: 찬란한 아침 햇빛에 눈이 부시다 못해 따라올 지경이었다. 그는 어두운 지하 동굴 속에서 여러 해 살다 밝은 세상에 올라 온 늙은 쥐처럼 위축된 느낌이 들었다.

다리가 부러져 병원과 집에 오래 머물렀던 주인공이 햇살이 강렬하게 비치는 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거리로 나온 뒤의 심정을 묘사한 것이다. 주인공은 직장에서 해고되자 나름대로 복직의 노력을 해보았으나 다 수포로 돌아갔다. 게다가 다리까지 부러져 몇 달 간 병상 신세를 진 후 겨우 일어나 바깥 사회에 나왔는데 강한 햇살에 눈까지 부시자 매우 주눅이 든다. 이런 주인공의 위축된 심정을 동굴 속에서 바깥으로 나온 쥐에다 빗댄 것이다. ‘그는 마치 여러 해 동안 동굴에서 살았던 쥐처럼 위축되었다.’고 해도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될 것이다. 즉 ‘어두운 지하’와 ‘밝은 세상에 올라 온’ 등은 명시화 의도로 인한 잉여적 요소로 볼 수 있다. 표현 자체가 복잡하고 쥐를 수식하는 관형구가 너무 길어져서 주인공이 동굴 속에 살다 나온 쥐 같은 심정이라는 비유 자체가 독자에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되기 힘들어 보인다.

ST: 如果有个一男半女, 即便下了岗, 也不至于大清早地就来到这里蹲着, 就像传说中的那个守株待兔的傻瓜.

TT: 아들딸이 한둘만이라도 있었다면 설사 강제 퇴직을 당했다 해도 꼭두새벽부터 이런 데 나와 쭈그려 앉아 있지는 않았을 게 아닌가? 옛말에 수주대토(守株待兔)란게 있다시피, 내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영락없이 그

격언대로 나무 그루터기에 쪼그려 앉아 지나가던 토끼가 걸려들기를 마냥 기다리는 바보 멧덩구리가 아닌가?

번역가는 守株待兔(수주대토)라는 성어를 번역하면서 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추가된 부분은 수주대토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텍스트 내적 주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수주대토는 한국 독자들도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밑줄 친 부분은 ‘수주대토에 나오는 바보처럼’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국화 전략을 사용하여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바보처럼’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상기 번역은 번역가의 과도한 창작으로 원작을 많이 변형 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이나 중국은 공히 한자를 사용하며 동일한 속담이나 성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쉬운 성어는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등가적 표현을 쓰거나 원문을 가급적 변형시키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중재를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하나 더 보자.

ST: “有遛骡子的有遛马的, 没想到还有遛警察的!”

TT: 당나귀 헛걸음시키는 작자가 있고 말대가리 관상을 보여주는 작자가
있단 말은 들어보았지만, 바쁘신 경찰 나리 헛걸음시켜 골탕 먹이는 작자
가 있을 줄은 정말 생각 못했네그러!

有遛骡子的有遛马的는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의미의 관용어인데 상기 예문은 헛걸음 친 것을 안 경찰이 관용어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에게 쓸데없는 고생을 시켰다고 빈정대는 대고 있는 장면이다. 직접화법이며 빈정대는 혼잣말로 보기에 또한 간략한 관용어로 인한 풍자 효과를 내기에는 번역문이 너무 장황하게 되었다. 결국 원문에서 의도하는 특유의 표현 기능이 많이 상실되고 만 것이다. 즉 의미적으로는 크게 어긋나지 않았으나 생소하고 장황한 표현으로 인해 쉽고 빠르게 전달되어야 할, 유티 있는 풍자적 기능이 발휘 되지 못하고 있다.

대안역) 퐁개 훈련시킨다는 말을 들어봤어도, 경찰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네.

2.3 독자의 추론 영역 번역

번역은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재행위로 볼 수 있다.(정호정 2008: 4)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메시지 수신자는 끊임없는 추론(inference)의 과정을 거치며, 메시지 생산자 역시 모든 정보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장은 의미 표상만(semantic representaton)을 가질 뿐 이 의미 표상은 그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실제로 전달되는 생각 내용(thoughts)과 대개의 경우 일치하지 않고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추론이다.(이성범 2015: 156)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추론에 의해 이루어지며(Gutt 1992: 35) 인지능력이 있는 도착어 독자 역시 번역텍스트를 읽으면서 추론의 과정을 거친다. 물론 출발어 독자와 도착어 독자 사이에는 언어문화적 갭으로 인해 추론 능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번역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명시화이다. 그런데 도착어 독자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번역문에 제시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정보로 오히려 독자의 원활한 정보 수용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저자가 독자 스스로 판단하고 상상할 여지를 준 것에 대해 그것을 번역가가 특정한 메시지로 전달하려 한다면 그 역시 저자의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ST: 但当他想往大门内挪步时, 门卫却毫不客气地拉住了他. 他挣扎着大喊.

TT: 그러나 그가 정문 안으로 걸음을 옮겨 떴을 때, 문지기는 친절한 태도는 추호도 없이 비정하게 그를 붙잡아 세웠다. 문지기의 손에 잡힌 그는 몸부림치며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다.

ST: 他将一个茶碗摔在地上, 双眼如喷火焰, 直盯着她那张枯瘦如柴的脸. 她起初还敢跟他对视, 但很快就去了.

TT: 그는 찻그릇 한 개를 땅바닥에 팽개쳐 박살내버리고 화염이라도 뿜을 듯 이글거리는 눈초리로 장작개비처럼 강마른 그녀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처음에는 그래도 남편과 마주 볼 엄두를 낸 그녀였으나, 이내 그 무서운 눈초리에 질려 겁을 집어 먹었다.

첫 번째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이 없어도 바로 앞의 내용을 통해서 주인공(그)

이 문지기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음을 독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두 번째 예는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내에게 남편이 찻잔 하나를 집어던지고 눈을 부라리자,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가 금방 겁에 질려 눈길을 피하는 장면이다. 아내가 겁을 집어 먹은 것은 당연히 남편이 분노의 눈으로 아내를 쏘아보았기 때문이며 굳이 아내가 겁에 질린 이유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문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내용이 직접 제시가 되면 그만큼 독자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지적 수고(intellectual labor)가 가중될 것이며 원활한 소통과 정보 수용에 부담이 될 것이다.

ST: 他叹了一口气, 收回胳膊, 颓唐地坐在凳子上. 一个不能挣钱养家的男人没有资格对着老婆发火, 古今中外, 都是这样.

TT: 탄식을 한번 토하고 나서, 그는 의기소침해져 팔뚝을 거두고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돈 벌어서 제집 식구를 먹여 살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내는 마누라한테 성낼 자격이 없다. 고급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가 그렇지 않은가.

아내를 향해 불같은 화를 내며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려던 남편이, 무능한 자신이 과연 이렇게 화를 낼 자격이 있는가? 하는 자격지심에 급거 주먹을 거두는 장면인데 ‘탄식을 토하고’,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와 이어지는 문장에 이미 의기소침한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즉 주인공의 의기소침한 심리는 주인공의 행동에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자의 문학적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번역가가 그것을 직접 표현한다면 저자의 의도가 구현되지 못하게 되어 독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학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다음은 지시사가 지시하는 바를 번역가가 직접 밝힌 경우이다.

ST: 第一次去药店买避孕套时, 他羞得连头也不敢抬, 话也说不清楚, 惹得那个卖货的年轻姑娘大发脾气. 当他拿着套子像贼一样溜走时, 听到
①那姑娘在背后大声地对她的同事说: “嘿, 真看不出来, 这把子年纪了, 还用这个……” 随着生意的日渐红火, 他的胆量越来越大, 业务也越来越熟练. 去药店买套子时他的脸不红了, 而且还敢跟卖货的姑娘讨价还价.
②那姑娘厚颜无耻地问:

TT: 처음 약국에 가서 피임용 콘돔을 사던 날, 그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입속으로 기어드는 말로 우물쭈물 주문한다는 것이 약품을 팔던 젊은 아가씨의 사나운 성깔을 건드려 한바탕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콘돔 몇 갑을 쥐고 도둑처럼 빠져 나왔을 때 그는 ①약을 팔던 아가씨가 등 뒤에서 일부러 동료한테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허어, 그것 참 못 봐주겠어. 저만한 나이에 아직도 그런 걸 쓰고 있다니.” 장사가 날로 번창하면서 그는 배짱이 갈수록 두둑해지고 업무처리도 날이 갈수록 숙련되었다. 약국에서 콘돔을 사들일 때 얼굴을 붉히지 않았고 아울러 약을 파는 아가씨와 흥정해서 에누리도 할 줄 알게 되었다. ②낮 두꺼운 약국 아가씨가 엄청 좋게 물었다.

상기 예는 원문의 지시사가 지시하는 바를 번역문에서 직접 밝힌 경우이다. 지시사가 지시하는 바는 앞에서 이미 제시가 되었으므로 도착어 독자는 그 지시하는 바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지시사가 지시하는 바를 직접 밝힐 경우 그 의미가 더욱 정확히 전달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①, ②는 모두 바로 앞에서 언급된 바로 그(那) 아가씨(姑娘)를 말한다. 그런데 특히 ②의 경우, ‘낮 두꺼운 약국 아가씨’가 바로 앞에서 나온 ‘약을 파는 아가씨’와 동일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즉 독자들로서는 ‘낮 두꺼운 약국 아가씨’가 약을 파는 여러 명의 아가씨 가운데 (낮이 두꺼운) 특정 한 인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문학작품에서 비슷하거나 동일한 어구가 연이어 반복되면 신선한 감이 떨어지고 독자는 지루해지기 쉬우므로(김상우 2009: 201) 지시사가 지시하는 바를 직접 밝힐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독자가 추론해야 할 부분을 번역가가 특정 내용으로 번역한 경우이다.

ST: 我把一个夏天里挣来的钱全部给你们行不行? 我给你们下跪叩头行不行? …… 杂种啊, 畜生, 你们欺负一个老头子难道不怕天打五雷轰吗? 你们这两个奸贼, 偷鸡摸狗的婊子、嫖客, 你们不得好死 …… 我叫你亲爹行不行? 叫你亲娘行不行?

TT: 내가 여름 한철 번 돈을 몽땅 줄 테니까 어서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도 안 되겠소? 좋아, 이 자리에 무릎 꿇고 당신네한테 머리를 조아려 큰 절하리다! 그래도 안 되겠어? 분노에 못 이긴 그는 이제 욕설을 퍼부었다. 이 잡놈들아, 짐승 같은 연놈아! 너희 연놈이서 늙은이를 업신여기고 놀려 먹다니, 그리고도 하늘의 벼락을 맞는 게 두렵지도 않느냐? 요 간살맞은

연놈, 남몰래 배가 맞아 아무하고나 둘러붙는 갈보, 창녀, 오입쟁이 후레 자식, 그런 짓을 하고도 너희 연놈이 제명에 곱게 죽을 듯싶으나? 저주를 퍼붓던 입담이 또다시 통사정으로 바뀌었다. 여보세요, 점잖은 양반들 내가 당신더러 친아버지라고 부를게. 아니 친어머니라고 불러드릴게!

상기 예문은 남녀 고객이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불길한 상상에 사로잡힌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나오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이다. 번역가는 두 군데 말줄임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상황 설명을 하였다. 물론 번역가의 설명은 기본적으로 사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번역가의 설명이 없어도 내용을 읽은 독자는 충분히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우선 독자들은 “……”를 통해 주인공의 태도가 돌변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시간적 경과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인공의 심리 변화와 망설임 등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독자들은 “……”를 대하면서, 숨 고르기를 하며 여운의 미를 느끼거나 독자 나름대로의 다양한 상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말줄임표에는 다양한 문학적 기능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데 번역가가 그것을 특정 메시지로 대체하게 되면 그러한 기능들은 발휘되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원문의 말줄임표는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두는 편이 좋아 보인다.

3. 결론

지금까지 2012년 중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모언(莫言)의 「師傅越来越幽默」와 한국어 번역을 대상으로 명시화로 인한 잉여적 요소의 발생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 전체를 일일이 대조하여 과도한 명시화의 유형을 3가지로 귀납 분류한 후 다시 각 유형별 대표적 예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명시화 의도로 인한 잉여적 요소의 구체적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원문의 부정확한 이해, 앞 문장 번역으로 인한 영향, 원전을 크게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부족, 번역투, 문화소, 관용어의 처리 등 번역기법에 대한 지식 부족, 독자의 추론에 대한 인식 부족,

표현의 독특한 기능이나 텍스트의 장르적 특징 미고려 등 과도한 명시화의 원인은 매우 다양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 원전에 대한 이해와 번역이론에 대한 문제로 개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명시화로 인해 번역문에 잉여적 요소가 발생한 결과 그 폐단 또한 심각함이 드러났다. 그것은 근본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번역가의 주관이 개입되어 원전 자체가 변형되고 저자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인데, 그에 따라 수반되는 구체적인 문제로는 부자연스러운 장황한 번역문, 왜곡된 정보의 제공, 주요 등장인물의 캐릭터 변화, 문장의 통일감 및 질서의 훼손, 핵심내용 전달 방해, 풍자성, 비유, 형상성 등 독특한 표현미의 상실, 독자 스스로가 체득함으로써 향유하는 문학적 효과의 반감 등이 있다. 이렇듯 원전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진 명시화가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그 역기능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데 상기 과도한 명시화의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잉여적 요소의 문제점들을 보면 마치 번역의 모든 문제를 집대성해 놓은 듯하다. 그것은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도착어 독자를 위해 중재를 해야 하는 번역에 있어서, 명시화는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며 또한 번역가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는 번역전략이기 때문일 것이다.

번역과정에서 번역가의 재량은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원작도 일정부분 변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작을 임의로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도 번역의 중요한 원칙이다. 양질의 번역과 바람직한 번역평가를 위하여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번역평가에 있어서 원전에 없는 내용의 추가나 생략이 고려되고는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 근거나 점검 사항 등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번역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번역 이론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자 취지이다. 이런 점에서 명시화에 대한 연구는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명시화에 대한 확장되고 상세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상우 (2009) 『글쓰기 필수비타민 50』, 서울: 페이퍼로드.
- 김정우 (2009) 「한국어 번역문의 구조적 명시화: 특정 보어 구문의 열세적 분포와 관련하여」, 『번역학연구』 10(3): 79.
- 김혜림 (2014) 「중중 번역의 단순화와 명시화 연구: 신문사설 코퍼스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3): 182-222.
- 남철진 (2014) 「중국 소설 『师傅越来越幽默』에 보이는 문화소의 번역 고찰」, 『외국학연구』 30: 327.
- 신지선 (2012)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명시화 전략: ‘문학적 감동’과 ‘문화적 자극’을 고려하여」, 조의연 (편저), 『번역학 무엇을 연구하는가?』,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29-157.
- 원영희 (2004) 「의미의 선명화를 위한 번역담화상 잉여성의 문제」, 『번역학연구』 5(1): 116.
- 이성범 (2015) 『소통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연향 옮김 (2005) 『번역용어집』. 서울: 한국문화사.(Jean Delisle, Hannelore Lee-Jahnke and Monique C. Cormier (eds) (1999) *TRANSLATION TERMIN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 임홍빈 옮김 (2009) 『사부님은 갈수록 유머러스해진다』, 서울: 문학동네.
- 전현주 (2013) 「번역학 술어 번역에 대한 고찰」, 『번역학연구』 14(4): 121.
- 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9) 『번역사와 번역학』. 서울: 한국외국어대출판부.
(Chesterman, Andrew and Wagner, Emma (2002) *Can theory help translators?*, Manchester: St. Jerome.)
- 정호정 (2008) 『통역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한국번역학회 옮김 (2009) 『라우트리지번역학백과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Baker, Mona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莫言 (2012) *师傅越来越幽默*, 北京: 作家出版社.
- Gutt, Ernst A (1992) *Relevance Theory*, New York: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Venuti, Lawrence (2004)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second edi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Shuttleworth, Mark and Cowie, Moira (2006)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Nida, Eugene A and Taber, Charles R (2004)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Abstract]

A Study on the Explication and Redundant Details in Literature Translation
— Based on the MoYan's Shifuyuelaiyueyoumo —

Nam, Cheol-Jin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explication is to make TR understand ST's message (including any hidden message) easily and clearly. According to this study, in many cases the intention of the translator's explication is not accomplished and may even raise serious problems. There are several important reasons why translators fail in accomplishing their purpose of explication. They can be lacking the understanding of TT and target culture, knowledge of translation theories, comprehens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T's genre, and the expressivity of TL. Improper explication by a translator can lead to redundant details. This may cause serious problems as the ST is changed due to the redundancy. It could decrease TR's readability and lead to the loss of ST literary elements. Translation is a kind of mediation to make TR understand the text written in a different language with the inherent cultural background. So translators need to successfully employ explication. Explication can change the ST; it is a self-evident truth. However, the translator must not change the ST. This is the basic principle of translation. We should find reasonable solutions to overcome these opposing conditions in translating for good translation and translation evaluation. In this regard, we can say further research in explication is sorely needed.

▶ Key Words: explication, redundant details, mediation, translation, translation evaluation

남철진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21ccj@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중국소설번역, 현대번역이론의 고전번역에의 적용 등

논문투고일: 2015년 12월 3일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29일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5일